



조선 강산

10

주제 107 (2018)
루체 제350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18 ISSN 1727—9062

배우자

아기자기하게(♩=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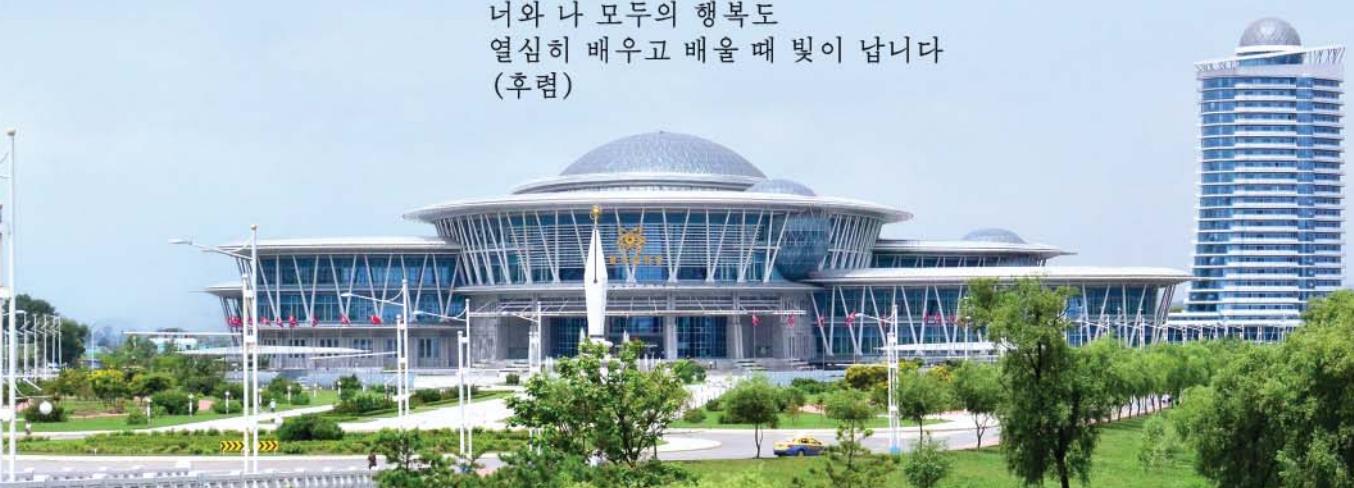
작사 리광선
작곡 황진영

mp Dm A A₇

1. 시간은 쉼 없이 흐르네 - 그려니 돌아 보지
마시고 - 금같이 귀중한 (후렴) 분초를 -
아껴 갑시다 배우자 배우자
내나라를 위해 - 배우자 배우자 앞날을 위해
우리의 - 식으로 - 락원꾸리자

2. 아는게 보배고 힘일세
그려니 열정을 다 바쳐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꽂펴갑시다
(후렴)

3. 한없이 소중한 조국도
너와 나 모두의 행복도
열심히 배우고 배울 때 빛이 납니다
(후렴)





퇴근길에서

하루일을 마친 로동청년들이 퇴근길에 올랐다.

그 시간마저 아껴가며 원격교육망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들이다.

본사기자 방은심

卷之三

- 일재강국의 주인공들로 -

일화

대 달

6 | [\[이전\]](#) [\[다음\]](#) [\[처음\]](#) [\[마지막\]](#)

수 기

313

여기서나 교육을 받고 있다 : : : : : : : :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반향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여 15

승고한 혁명적의리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16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 20

보양생활을 하고 있는 전쟁로병들 36



고향소식

변모되는 고장	38
---------	----

조국의 품에 안겨

《애국의 성들이 되자》	40
--------------	----

편지

영웅의 그 넛을 이어가겠습니다	42
------------------	----



인상기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	43
-----------------	----

따뜻한 정	43
-------	----

고국방문

잊지 못할 봄날에	44
-----------	----

44

돈과 직업, 일터와 조국 (2)	46
-------------------	----

수기

친정	47
----	----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용 (2)	48
------------------	----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1)	49
----------------------	----

민족의 향기

민족의 순결함이 실린 백자기	50
-----------------	----



력사인물

《왕오천축국전》과 혜초	51
--------------	----

조국의 천연기념물 (21)	52
----------------	----

한천호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	54
-----------------	----

평화와 번영의 리정표	56
-------------	----

54

상식

금장암사자탑	41
--------	----

건강에 좋은 밤	49
----------	----

유모아

황새의 다리	51
--------	----

조선속담 (강의성)	52
------------	----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2월

- 인재강국의 주인공들로 -

일화

하나의 풍경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우리 조국땅 그 어느 공장, 기업소에 가보아도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해가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것은 보다 눈부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래일을 약속하는 하 나의 풍경이 아닐수 없다.

주체104(2015)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아주시였다.

화장품직장, 세수비누직장, 견본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마다 화장품에 대한 기호와 요구가 서로 다른것만큼 크림, 향수, 살결물, 연지, 머리기름,

화장비누 등을 여러가지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수 있게 잘 만들며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보급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한 책임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지난해 4월부터 35명의 공장로동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아주 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컴퓨터망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어주시고 어느 한 컴퓨터의 화면도 보아주시였다. 그러시

면서 이제는 어디에 가보아도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는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있다고 뜻내 기뻐하시며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두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분초를 아껴가며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 할수 있는 화장품을 생산할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누구나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해간다

- 교육위원회 부국장 리용철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교육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인 원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부국장: 지금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높다. 특히 대학입학지망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만 보아도 불과 몇 해 사이에 전국의 수백개 기관, 기업소의 수천명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배우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자: 그런데는 근로자들이 지식의 탑을 쌓아야 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은 물론 공장, 기업소를 현대화할수 있고 조국을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으로 건설하는데서도 한몫할수 있다는 자각을 지니고 있는데도 있겠지만 원격 교육 자체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대학강의를 받을수 있고 현실에 접근시킨 실용적인 교육이라는데도 있다고 본다.

부국장: 그렇다. 원격교육은 광범한 근로자들의 배움의 열의에도 부합되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 주는데도 더없이 좋은 교육형태이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원격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어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사



실 우리 나라에는 이미전부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하지만 우월한 교육체계라고 하여도 부단히 교육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다.

당시 누구보다 이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 고등교육체계에서 통신교육체계를 원격교육체계로 전환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원격 교육이 시작되게 되었으며 그 발전을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

어지게 되였다.

기자: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격교육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화발전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쑥쉼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인민들이 전당을 찾거나 망을 통해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그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속에 국가적인 원격교육망이 전국각지에 구축되고 원격교육대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 속에 도, 시, 군(구역)들에 원격 교육거점들이 생겨나고 공장, 기업소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부국장: 옳다. 그렇게 꾸려진 원격교육망을 통해 근로자들은 하루일이 끝나면 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망을 통해 받으며 잘 모르는 문제들은 망상에서 물어도 보고 시험도 치면서 지식의 탑을 쌓아나간다. 대학에서는 매 학생들이 강의를 받은 정형과 시험응시

정형을 비롯한 학습정형을 매과목별로 장악하고 평가한 다음 뒤떨어진 과목에 대한 참고도서들과 자료들을 제시해주면서 학생들이 지식을 다져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실천에 절실히 필요한 지식을 배울수 있도록 강의안도 작성해주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의 과학기술발전과 설비현대화, 생산장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해당 대학의 과학기술력량의 집체적협의밀에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 과정에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전공분야의 지식과 함께 자기 공장의 과학기술발전과 설비현대화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배운 지식을 현실에 구현해나가고 있다.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은 과학기술전당의 망을 통해서도 자가에게 필요한 참고서나 자료들을 참고하여 지식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기자: 원격교육은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생모집절차에 따라 자기 직종에 맞는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원격교육은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물론하고 가정부인들과 영예군인, 장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부하는 그야말로 전민 학습체계라고 할수 있다.

부국장: 그렇다. 원격교육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기술형근로자들로 키워내고

오랜 기술자들은 재교육을 시켜 그들의 실력을 보다 높여주고 있으며 일군들은 과학적인 안목과 지식으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잘 세워 밀고나가도록 하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부인들과 영예군인, 장애자들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켜 나라를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자: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극 활용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고 있다.

지금 원격교육의 우월성은 현실에서 확증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김영남은 비상한 전공분야의 지식과 함께 자기 공장의 과학기술발전과 설비현대화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으로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를 제작하고 보이라에 도입하여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 증기생산량을 배로 늘리게 하였는가 하면 기능공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능공양성기간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 송림도시 전설대 로동자 조광진은 지난 시기 리용하던 중력식혼합기를 대담하게 전력소비가 적고 작업능률이 높은 쌍축혼합기로 개조할 결심을 가지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후에는 고충살림집건설과정에 마감건재들을 운반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이동식소형기중기를 연구제작하여 살림집건설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부국장: 그렇다. 원격교육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기술형근로자들로 키워내고 오랜 기술자들은 재교육을 시켜 그들의 실력을 보다 높여주고 있으며 일군들은 과학적인 안목과 지식으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잘 세워 밀고나가도록 하여주고 있다. 황명희는 가정부인이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이악하게 공부하였다. 그 나날 그는 생산단위들에서 전력을 극력 절약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볼 결심을 하게 되였으며 이를 위한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여 그는 태양열에너지에 의한 제품포장공정학립에서 성공할 수 있었으며 여러가지 원자재들을 우리 나라에 흔한 자재들로 리용할수 있는 기술적방도도 내놓게 되였다.

장애자인 장수영 역시 대학과정에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하여 황사를 제거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 연구사들까지 도와나서고 있다. 처음 그가 이 연구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기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근로자들의 실천활동에서의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끌이 없다고 생각한다. 생각할수록 누구나 다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하고 배운 지식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나라의 번영을 위해 바쳐가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이것은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원격교육의 정당성이 고 생활력이라고 생각한다.

부국장: 그렇다. 우리는 앞으로 원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그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 인재강국의 주인공들로 -



원격교육을 받고있는 로동자들

배우며 실천해간다

오늘 조국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하나인 원격교육의 성과가 날로 큰 은을 나타내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종합대학들에 있는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원격교육을 받으며 배운 내용을 실천에 널리 적용하고 있다.

그들중에는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의 원격교육대학 학생들도 있다.

우리와 만난 하남식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회사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하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짧시간을 내여 열심히 배우는 한편 회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연구사를 뜯지 않게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정말 볼수록 돋보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로동자대학생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향했다.

전력관리용집중기, 가정용단상카드식적산전력

계, 3상적 산전력계를 비롯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조립, 교정현장에서 우리는 공업경영학과 5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옥향을 만날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안있어 졸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하면서 배우자니 힘들었습니다. 특히 2학년때 해석수학, 프로그램작성법을 비롯한 과목들은 리해조차 하기 힘들어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학의 교원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우리 회사일군들과 연구사들까지 제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그 나날 우리들은 서로 배우고 도와주면서 오늘은 이렇게 졸업반에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공업경영학과 5학년에서 공부하는 김금주기술원에게로 이끌었다.

김금주기술원은 대학기간 여러분의 창의고안을 하였다. 그는 생산공정에서 로력을 절약하기 위해 1초임플스획장장치라는것을 만들었다. 이 장치는 지난 시기 1대의 교정기로 1대의 전력계밖에 시간교정을 하지 못하던것을 교정기 1대로 3~4대의 전력계, 지어는 20대까지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절약, 로력절약을 할수 있는것이었다. 이외에도 그는 교정대의 교정속도를 높일수 있는 여러분의 창의고안도 하여 발명가대학생으로 불리우고있다. 그는 이것은 다 원격교육의 덕이라고 하면서 원격교육이 대학에 직접 가지 않고

서도 아무때건 시간에 관계없이 배울수 있고 리해될 때까지 입력된 강의를 되돌려볼수 있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같은 학파, 학년에서 공부하는 장은혜수리공은 전문가들도 다루기 힘든 전력관리용집중기를 알아보면서 제기되는 프로그램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그는 가정용단상카드식적산전력계에 설치하는 차단기상태검측회로를 새롭게 구성하는데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이들뿐이 아니었다.

김현아, 지향미교정공들을 비롯하여 정보처리공학과 2학년, 공업경영학과 4학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였다.

그들은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게 될 새 기술과제를 알아안고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김광준 새기술연구실 실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로동자대학생들이 있다는것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이곳을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어디서나 배우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온 나라 인민의 모습이 펼쳐지는듯싶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회사의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담보

오늘 조국은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조국이 이제 경제강국까지 건설하면 사회주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더욱 떨치게 될 것이다.

조국이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경제강국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사회에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을 확립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 전도를 좌우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고 있는 현시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경제강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는 것과 함께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생산수단의 현대화, 정보화가 아무리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하여도 근로자들이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실제로 은을 낼 수 없다.

근로자들 모두가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하고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가 되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나라의 풍부한 자원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 자재를 자체화하며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나가는 문제도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인간으로 키울 때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사상과 혁명한 정도밀에 지금 온 나라에는 과학중시열풍, 과학기술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그러한 속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기관들 그 어디에나 과학기술보급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전자도서실이 꾸려지고 컴퓨터망을 통한

과학기술보급사업과 원격교육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과 원격교육을 통하여 과학기술로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로동자창의고안명수, 발명가대렬을 급속히 늘이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례없는 양양이 일어나고 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자기 직종에 맞는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백수십명의 종업원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강의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은 열수축기를 자체로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2배로 높인 것을 비롯하여 화장품의 생산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내놓게 되었다.

원산구두공장에서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이 거기에서 원격교육대학강의도 받고 세계적인 신발공업발전추세도 환히 깨들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을 더욱 장성시킬 수 있게 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가방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준비시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자체의 힘과 지혜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강국건설의 끊임없는 성과는 이처럼 생산자대중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앞세울 때에만 담보될 수 있다.

오늘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공장들에서 울리는 종산의 거세찬 동음은 현대과학기술을 지닌 지식형의 근로자들에게 의거할 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원료, 연료, 설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생산의 과동성을 없애고 확고한 장성을 이루 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지식형의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이 높이 발휘될 때 경제강국건설은 하루빨리 앞당겨지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이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윤정

창의고안명수로 자라나기까지

저는 평안남도 회창군식료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사람들은 창의고안명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내세워줄 때면 저는 정말 일하는 궁지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제가 체험한데 의하면 현장에서 로동을 해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알지 못하고서는 생산성과를 올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자기가 다루는 설비들에 대해서도 더 발전시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에 오늘 나라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제시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지식형의 근로자가 될 것을 요구하며 그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에 불과한 제가 남들이 생각 못하는 창의고안을 여러 건이나 하게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원격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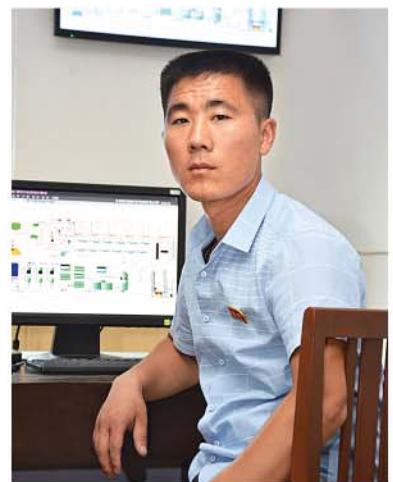
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식료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자국을 뗀 저는 공장의 혁신자가 될 꿈을 안고 열정에 넘쳐 일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용수쁨프를 다루면서 생산에서 첫 공정으로 되는 이 설비에 로력이 불어 있지 않고 무인화된 설비로 개조해 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조사업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에 걸친 실패를 분석하면서 저는 그 원인이

지식의 빈곤으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가슴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욕망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저는 그 후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게 되였고 그때부터 친구스럽게 지식의 탑을 쌓아나갔습니다.

원격교육은 참으로 실용적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 꾸려진 컴퓨터망을 통하여 혹은 임의의 장소에서 대학의 이름 있는 교수, 박사, 교원들의 강의를 받으면서 실력을 높여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저의 실력상태를 평가한 다음 어느 과목의 기초가 약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참고도서들과 자료들을 제시해주면서 지식을 다지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실천에 절실히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강의안을 새로 작성하고 그것을 알기 쉽게, 실감있게 배워주었습니다.

그 나날 저는 공장의 설비현대화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지난 시기 고심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용수쁨프의 무인화를 실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탕생산공정의 연신기속도조종체계와 파자생산공정의 컴퓨터조종체계구축도 제가 원격교육과정에 습득한 수학적인 모형화 능력과 응용프로그램들의 적용원리를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전문분야의 응용프로그램들을 활용 할 수 있게 준비한 데로부터 빠른 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연구사들의 방조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천을 통하여 저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이전에는 욕망으



로만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달라붙어 해결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여 연구완성한 것이 태양빛전지판에 의한 12V 자동봉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봉합기는 국가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가 편리하며 생산성 또한 높은 것으로 하여 전기 절약형, 로력 절약형 설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저의 지식과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들에 원격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고 세심하게 이끌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안아온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원격교육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천에 적극 활용해 나감으로써 공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평안남도 회창군식료공장
로동자 강충혁

- 인재강국의 주인공들로 -

어디서나 교육을 받고 있다



조국에서는 희망에 따라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누구나 일하면서 마음껏 대학 교육을 받으며 과학 기술인재들로 준비해 가고 있다.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전호에서 계속)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관청도 없네. 촌공회라는 자치기관을 통해서 조선사람들끼리 만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단 말일세. 이런 리상적인 동네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나는 이때야말로 《리상촌》에 대한 우리의 판점과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로인님, 자치기관을 꾸려놓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마을을 건설한것은 애국적인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수 있겠습니까?』

울방자를 들고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리며 위엄을 뽑던 로인은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눈썹만 썰룩거리였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독립은 못해. 자네가 내 아픈 곳을 면바루 건드렸네. 〈리상촌〉이라고 만들어는 놓았지만 독립운동에 보탬은 못 주고있지.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있네. 〈리상촌〉을 건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리상촌》건설의 허황성을 론증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국땅에다가 《리상촌》을 건설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로인님들의 노력으로 오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선인부락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사람들의 리상이 해결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리상은 왜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국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것이다, 그런데 지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리상으로 산다고 말할수 있는가, 왜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오면 오가자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먹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놈들은 조선민족이 리상적으로 사는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리상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는건가?』

변로인은 초조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였다.

『우리는 이 마을을 현상유지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자는것입니다.』

『그러니 오가자에 사회주의를 퍼뜨리겠단 말

이지. 그건 안되네. 난 사회주의라면 질색이야. 기미년 여름에 관전에서 자네 아버지가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다같이 그 뜻을 지지했네. 그런데 그후 고려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라는게 말짱 미친 놈들뿐이더란 말일세. 그놈들이 하는짓을 보면 전부 종파질뿐이야. 그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오한이 나더군.』

변대우로인이 고려공산당에서 받은 푸른 당증을 꺼내보인것이 이때였다.

『성주가 혁명을 하느라고 아무리 애를 쓰며 돌아다녀두 이런 당증이야 없겠지?』

로인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나를 넘지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 당증을 펼쳐보다가 양복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다.

뜻밖에 그런 일을 당한 로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종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공산당 당증인데 좀 두고보겠습니다.』

로인이 당증을 돌려달라고 할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는 자네들이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략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강동, 신안둔, 내도산, 카륜, 고유수 등의 마을들을 어떻게 혁명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로인은 이야기를 매우 주의깊게 들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네들이 말하는것을 다 들어보면 쓰딸린주의자들인데 나는 반대 안하네. 그러나 쓰딸린만 쓰딸린이라고 해서는 안돼. 뜨로쓰끼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라고 하면서 뜨로쓰끼의 리론을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막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뜨로쓰끼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내가 공산주의리론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였지만 뜨로쓰끼를 그처럼 두둔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변로인에게 물었다.

『로인님께서 뜨로쓰끼를 그처럼 숭배하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사실 나는 뜨로쓰끼를 숭배하지 않네. 지금 청년들이 덮어놓고 큰 나라 사람들을 숭배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거네. 뜨로쓰끼면 뜨로쓰끼고 쓰딸린이면 쓰딸린이지 지금 젊은것들은 찍하면 큰 나라 사람들의 명예를 끄집어내놓고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것인가. 쓰딸린의 명예가 어떻고 뜨로쓰끼의 말이 어떻다는것이야 로씨야사람들이나 할말이지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얼을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 할게 아닌가.』

로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며칠동안 《변드로쓰끼》령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로인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에 혹시 이 로인이 뜨로쓰끼파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도 가지였다. 그러다가 뜨로쓰끼파는 아닌데 종파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리는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식으로 살아가서는 안된다, 무엇때문에 로씨야가 어떻소, 쓰딸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매사에 로씨야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는가, 로인이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사상을 분명 이런것이였다. 요컨대 제정신을 가지고 살라는것이였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네. 내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네. 우리 달환이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얼도 없이 남들의 명예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것과는 기어코 해보겠네.』

나는 로인의 이 말을 듣고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해온 우리의 립장이 옳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변대우로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카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조선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새형의 당과 군대를 나오고 사상과 신앙, 재산정도, 남녀로소의 차이를 뛰여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2천만의 항전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로인은 강한 충격을 받는것 같았다. 로인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무으려는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 특별히 환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평화의 영웅》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날이 갈수록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언론들은 이번 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을 《새로운 역사창조》, 《역사적인 사변》, 《역사책과 세계사교파서에 담겨질 회담》, 《세계를 35분간 정지시킨 조미수뇌단독회담》, 《새로운 출발 알리는 역사적서명》 등으로 평하였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현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세계평화의 영웅》,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신분》, 《전세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으신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끌어내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세기적만남이다.

내외여론들이 최근 전세계에 대파문을 일으키고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며 전격적인 대외활동들은 그이의 높은 국제적권위와 비범한 예지,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의 뚜렷한 파시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자주화된 새세계건설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하기에 수많은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추동하고 지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세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결단》, 《세계평화와 안정보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조선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의 표시》,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와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에게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2018년 6월 12일은 세계역사에 기록될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신것은 거례에게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경륜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안아온 경이적인 현실이다.

어머니와 불리우는 당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왔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의 모습은 다름아닌 그 당을 이끄는 령도자의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인 주체 86(1997)년 10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령도하시는 수십년간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자면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구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철학이였다.

수천만 인간들의 운명을 끌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홍남지구의 일부로 동자들이 이발이 들판하지 못하여 생활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 전국의 치과전문가들을 긴급동원하여 로동자들의 이발을 집단검진하고 치료해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함흥에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이발치료를 위한 크고 현대적인 예방원을 일떠세우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건설이 끝났을 때에는 이곳을 찾으시여 당시 아끼는 로동계급의 이발을 잘 보호해주라고 의료일군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어느 한 도당에서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해당 일군들이 현지의 로동자들에게 사파하도록 하신 이야기,

업을 사람들의 사상감정파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하시였고 당조직들이 민심을 일심 단결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강령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도록 깨우쳐주신분도 장군님이시였다.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조국땅에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시며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당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는 길이였고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는 길이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기 위한 번영의 새시대를 불러오는 혁신의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 CNC기술의 첨단돌파와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주체비날론과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현실이 련이어 펼쳐졌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수많은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들과 가금생산기지들, 기초식품생산기지들이 일떠서고 인민을 위한 명승지들과 문화휴양지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들과 혈연적纽대를 이룬 혁명적당,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끌까지 책임지고 보살펴는 어머니당으로 존엄멸치게 되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모든 당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여

오늘 조국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실현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복받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인민들의 날로 키기는 기쁨과 행복은 조선로동당의 향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후 73년간에 걸치는 장구한 세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향도하여 왔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 15(1926)년 10월에 결성하신 《ㅌ. ㄷ》(타도제국주의동맹)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당의 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인민의 지향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나라가 해방된 후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안겨준 토지개혁법령, 그처럼 어려운 전화의 나날에 태여난 무상치료제, 생산활동을 사람파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대중의 양양된 열의로 사회주의기업을 관리하는 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전구마다에 지펴주신 성강의 봉화, 강계정신 등 그 어느것이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요구와 의사, 양양된 열의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후 대국주의자들이 《쎄브》에 들것을 강요하고 종파분자들이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시비할 때에도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기계공업뿐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주는 자주의 성새를 일떠세웠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적들과의 침예한 대결을 동반한다.

1950년대초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혁량상 대비가 안되는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공화국의 존엄, 인민의 자주권을 지키였고 전후 수십년간에 걸쳐 제국주의련합세력파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하며 변함없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길,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끈바로 전진하여 왔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우리 조국이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기에도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지키려 총대를 더 굳게 틀어쥐고 우리 인민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왔다.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는 그처럼 간고한 시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해주시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킨 토지정리사업, 희천발전소건설,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산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공장, 기업소, 목장 등을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워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단 한번의 실패와 우여곡절도 없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향도하여온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답보를 마련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시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혁신가가 수놓아지고 인민을 위한 멋쟁이거리들과 아이들의 궁전들이 일떠서고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국력을 갖춘 나라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민으로서의 존엄을 만방에 펼치고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꽂펴나고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여온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백승만을 떨치며 이 땅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승고한 혁명적의리의 력사는 영원합니다

(전호에서 계속)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여름 어버이수령님께서 오가자시절의 연고자를 만나시였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혹시 고유수의 현균이네 형제를 모르는가고, 고유수에 현균이와 현화균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고유수의 주인이 되여 투쟁을 잘하였다고 회억하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광활한 동북지방을 지나실 때마다 만주의 낮익은 산천을 바라보시면서 고유수를 생각하시고 현하죽과 후손들을 생각하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하죽선생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선생의 후손들은 다문 한두명이라도 살아있을테인데 왜 종무소식일가, 나는 그들의 주소를 몰라서 속수무책이지만 그들이야 나에게 편지를 할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시며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으로 늘 저희일가를 찾으시였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전설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때든지 나라가 독립되면 고유수에서 진빛을 단단히 갚으려고 하였다고, 만나서 소박한 음식상도 차리고 회포를 나누고싶은 심정이 간절하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그 승고한 의리로 얼마나 가슴을 불태우시였으면 마침내 우리 일가를 찾아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무렵 해외동포들을 만나시는 기회에도 할아버지 현하죽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그는 내가 언제나 잊을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둔것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중국 길림에서 조선사람들이 발간하는 잡지에 〈놋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가 바로 나의 초기혁명활동을 도와준 현하죽선생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라고 하시며 저희들과 상봉하시던 때를 뜨겁게 더듬으시였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시던 은인들중 한사람을 기적적으로 만나신 극적인 날은 이렇게 마련되게 되였던것입니다.

현종옹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시련에 찬 길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산천도 몇번 변한 그 긴긴 세월 현하죽일가를 잊지 않으시고 찾기 위해 그처럼 애쓰시였다는 이 모든 눈물겨운 사실을 전해들으며 저희들은 소리내여 울음을 터치였습니다.

어머니도 『김성주선생님!』, 『김성주선생님!』하고 그냥 외우며 웃고름만 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것이였습니다.

저희들 현하죽일가를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은 의리의 세계에는 정녕 끌이 없었습니다.

어느날엔 저희들이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참관하고 있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하여 비행기를 따로 보내주도록 하시였고 또 어느날엔가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공연도 저희들을 몸가까이에 앉히고 보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작별식사를 잘 차려주도록 사려깊이 해아려주시였습니다.

중국의 옛 문호는 한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것이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데 있으며 100년의 계획은 농을 닦는데 있다고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인정의 세계를 동경하고 리상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 이런 눈물겨운 인정의 세계를 목격하였더라면 어버이수령님앞에 무릎을 끓고 삼가 큰절을 올리였을것입니다.

조선혁명의 혁명기에 송화강지류의 이통하강반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농촌마을인 고유수의 리가툰의 버들풀에서 맺어진 위대한 수령님과 현씨 일가와의 끊을수 없는 인연은 이처럼 60여년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기습이 없는 사랑의 바다

알길 없는 행처를 수소문하실 때에는 그리도 안타깝게 소식을 기다리시였고 일단 만나신 다음에는 떨어져있으면 정이 멀어질세라 자주 찾아주

시고 옆에 있으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해주고싶으시여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무한대한 인정의 바다에는 정녕 기습이 없었습니다.

평양에 갈 때면 저희들은 의례히 조선혁명박물관을 찾곤 합니다.

올해 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6돐을 맞으며 방문하였을 때에도 저는 안해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고유수의 리가툰마을과 더불어 저의 어머니 김순옥이 나라찾는 대업에 몸을 내던 혁명가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낀 쌀주머니를 풀어헤쳐 정성스레 밥을 지어올릴 때 윤기나게 닦고 또 닦던 놋그릇, 언제든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시 오시면 쓰려고 오랜 세월 정히 보관하고 있던 그 놋그릇,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년을 두고 알길 없어 안타까와하시던 우리 일가를 찾으시는데 귀중한 연줄로 된 바로 그 사연깊은 놋그릇이 조선혁명박물관에 정히 보관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느해인가 박물관에 갔을 때 저희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놋그릇앞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시고 또다시 고유수시절을 뜨겁게 추억하시고 어머니 김순옥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찾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놋그릇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고유수시절과 인연이 있는 한녀인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놋그릇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에서는 초년고생의 어혈이라고 할가 내내 건강이 여의치 못하였던 어머니에게 생의 활력을 다시 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사랑, 현씨일가에 대한 승고한 혁명적의리의 혁사를 끝없이 수놓아가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무한대한 인정의 세계, 그 은혜로운 사랑의 바다가 마냥 일렁이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80이 넘은 어머니는 조국에 나올 때 몹시 숨이 차하고 허리도 펼수 없어 부축을 받아서야 겨우 움직일수 있었습니다.

일찌기 남편을 잃고 혼자서 7남매를 키워야 하는 조련치 않은 인생길에 부대껴온 모진 세파의 혼적으로 여기면서 저희들도 그런 어머니를 두고 가슴아파하였을뿐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왔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60여년만에 다시 뜻깊은 상봉이 이루어진 그해 11월 어머니가 조국의 품에 안기였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이후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다소라도 도움을 받으신 사람들을 잊을수 없는 사람들로 중시하시며 은인들을 찾지 못하여 그려도 애써오신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구, 전기용품이랑 일식으로 갖춘 어머니의 살림집을 풍자 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잡아주시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김순옥할머니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히 이르시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넘친 사랑으로 어머니가 좋다는 약은 다 쓰면서 생의 활력을 다시 찾았던 1992년 3월 12일이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함께 헤쳐온 투사동지들, 혁명사적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전국혁명사적일군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습니다.

영광님친 그 자리에 어머니 김순옥과 당시 조국을 방문한 중국에서 사는 저의 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수를 불러주신것만도 황송하기 그지없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연시작에 앞서 일군들에게 어머니가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며칠전에 생일 85돐을 친데 대하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가족들이 그 상을 가지고 건설장에 찾아가 건설자들을 고무하여준 사실을 대견히 여기시면서 어머니일행을 따로 만나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속에 병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여 숨이 차던것과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나아진것을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쁘시여 어머니에게 그전보다 건강해보인다고, 조국에 나와 오래 살아있으니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정히 우러러 어머니는 문수거리 살림집에서 살다가 얼마전에 당의 배려에 의해 새로 지은 더 좋은 살림집으로 이사하였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수도 원래 살던 집도 만족하였는데 궁궐같은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게 되여 눈물을 흘리였다고 목메여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수거리에 있는 살림집에서 살다가 얼마전에 당의 배려에 의하

여 새로 지은 더 좋은 살림집으로 이사하였으면 좋습니다라고 더없이 만족해 하시면서 어머니에 대하여 또다시 추억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김순옥녀성의 시아버지 현하죽은 우리 아버지의 지도밑에 반일투쟁을 하였고 시동생 현균은 나와 같이 《트. 디》와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하였습니다며 남편 현화균은 고유수농민동맹사업을 말이하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

어머니와 누이, 형수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는 어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정녕친 어조로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순옥녀성은 내가 고유수에서 활동할 때 식사를 보장하여주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때 식사를 성의껏 보장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기나긴 세월을 두고 잊지 않으시였을뿐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렬한 추억속에 감회깊이 더듬으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이 세상 가장 고결한 의리와 사랑이 한마디한마디 그처럼 뜨겁게 진정으로 함축되어있는 말씀이여서 어머니는 물론 누이와 형수도 얼굴을 싸쥐고 끝내 오열을 터치였습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동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 어머니도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였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순옥이 한 5년 더 살수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김순옥에 대한 글을 써서 소개한 중국 길립성 《도라지》잡지사 기자가 용타고, 그가 글을 써내지 않았더라면 김순옥을 찾아내지 못하였을것이라고 정회에 젖은 어조로 뇌이시였다고 합니다.

저희 일가모두에게 한생에 다시없을 영광을 안겨주시고도 벌써부터 찾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하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의 세계는 이렇듯 보통사람은 상상할수도 가늠할수도 없고 또 좀처럼 믿기 힘들어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웅심깊고 무한대한 세계였습니다. 정말 어버이수령님 같으신분은 넓고넓은 세상천지에 더는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자신께서 돌보아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것을 숭고한 의리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의 어머니 김순옥을 대해 같은 품에 안으시여 반일애국렬사로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다함없는 사랑과 은정으로 소생시켜주시여 95살까지 장수하게 해주시였습니다.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말그대로 일곱 자식을 키우느라 이해저래 생일을 모르고 살던 어머니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일 85돐상에 이어 90돐상도 차려주시고 95돐생일상도 보내주시였으며 사후에는 신미리애국렬사릉의 높은 언덕에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출지에 잃은 충격에 저희들이 정신적방황으로 허탈감에 잠기였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수령님과 연고관계에 있는 저희 일가를 잊지 않고 평양에 불러 수령님의 령전에서 저희들과 슬픔을 함께 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혁명적의리의 화신으로 만민의 열화같은 경모의 절정에 높이 서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저희 일가에 있어서 어버이수령님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텨 6년전 11월이였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돐을 며칠 앞둔 때여서 온 나라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뼈저리는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저의 어머니 김순옥의 사망 10돐 추모행사를 잘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에 사는 자식들이 다 참가하도록 사려깊이 헤아려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20돐때에도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저의 안해 김명애가 중국에서 앓던 병으로 신고하고있는것을 료해하시고 40여일간이나 치료해주도록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저의 안해를 치료해준 정부병원의 의료일군들 아니 천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준 고결한 의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의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길 없는 그이의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적으려고 합니다.

올해 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에 즈음하여 평양에 온 저희들은 꿈에서도 상상

할수 없었던 감격적인 일에 접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반세기도 훨씬 전에 우리곁을 떠나간 저의 삼촌인 현균의 이름을 《항일혁명렬사추모비》에 새기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던것입니다.

흔히 세월의 흐름은 사람들에게 잊음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최절정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보아주신 그 당사자는 말할것도 없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한결같이 기억하고계실뿐아니라 그들 매 사람의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 이처럼 깊이 헤아리시며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시는것입니다.

해와 달처럼 다함이 없고 우주와 같이 가엾으며 세월이 흘러가도 진할줄 모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화같은 사랑과 숭고한 의리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만사람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세상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사실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신세로 말하면 우리 현씨일가가 대를 두고 갚아야 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입니다.

암담하던 민족수난의 시기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할아버지 현하죽을 독립운동의 의로운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바로 그런 연고로 하여 할아버지는 김형직선생님 댁에서 이모저모로 폐도 적지 않게 키치였던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저의 아버지 현화균과 삼촌인 현균도 혁명조직성원으로 성장할수 있었고 저의 어머니 김순옥도 혁명적으로 계몽각성되어 야학에 나가 글도 배우고 부녀회에서 활동하게 되였던것입니다.

온 가족을 성스러운 혁명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저희들 현하죽일가가 저하늘의 별을 따라 올린들 어찌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은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잠시 인연을 맺으시였던 사람들을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워하시고 찾으시였으며 일단 찾으신 다음에는 그 당사자는 물론 후대들까지 련련히 사랑과 의리로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도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저희들 현하

죽일가는 천년이 간들 잊을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혁명의 개척기에 시작되어 장장 반세기가 흐르도록 아름답게 엮어졌으며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꽂펴난 조선혁명의 숭고한 의리의 력사는 오랜 혁명투쟁사가 알지 못하는 류례없는 혁명적의리의 정화라고 저는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말하고싶습니다.

혁명과 인간에 대한 열화같은 심장으로 혁명적의리의 새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무한대한 의리로 하여 령도자와 혁명전사들사이의 혁명적이며 혈연적인 관계가 더욱 철통같이 맺어지는것이며 그것은 폭풍과 시련을 이겨내며 순결하게, 출기차게 이어져 거창한 일심단결의 대하를 이루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의 인력파도 같은 거대한 힘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안으시고 지극히도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무한대한 인정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는 각광의 원천입니다.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의리를 중히 여겨 사람은 의리에 살고 의리를 지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저희들은 만경대를 찾아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바라보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개척하신 력사의 새벽길을 다시금 더듬어보면서 사철 푸름을 잊지 않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으로 선렬들이 걷던 길을 끗이 이어갈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세대, 아버지와 어머니세대를 안아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세워주시였으며 대를 이어 고결한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고 세월의 연덕을 넘어 끝없이 위해주시는 만경대혁명일가의 변할줄 모르는 혁명적의리의 력사는 우리 현씨일가에 있어서 억만금보다 귀중한 재보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사무치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태양민족의 자부심높이 저희들 현씨일가는 사람마다 신심과 활력에 넘쳐 광활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조국을 위하여 적은 힘이나마 바치며 일편단심 의리의 길을 걸을것입니다.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참가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9월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

지난 9월 조국인민은 크나큰 궁지와 환희에 넘쳐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 조국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꽃바다, 춤바다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9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김일성광장은 조선로동당이 펼친 백승의 진로

따라 자력부강의 위대한 혁사를 창조하며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조국의 천만 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모두 모여 뜨거운 열기로 끓어번졌다.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제일 국력이며 여기에 남들이 가질수도 흥내낼수

도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열병행진이 시작되자 각 군종, 병종 열병종대들과 각급 군사학교종대 등이 위풍당당히 전진하였고 무쇠철갑대오가 지축을 울리며 나아갔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로는 비행기들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상징한 《70》이라는 수자대형을 짓고 날았다.

무진막강한 조선의 군력을 파시한 열병대오는 군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열병식에 이어 진행된 평양시군중시위에서는 강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시위하며 공로자, 군인가족, 농업근로자, 체육인, 소년단원, 로동계급, 과학자, 교원들 등이 대렬을 맞추어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경축의 광장을 련이어 누벼갔다.

시위참가자들은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며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잘 보여주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 평양의 밤은 잠들줄 몰랐다.

이날 저녁 아름다운 룽라도에 자리잡은 5월 1일경기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진행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한 평양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조국인민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화란만장의 복잡다단한 70년 행로에서 공화국기

에 새겨놓은 민족자주, 인민사랑의 건국리념을 그 어떤 변색도 없이 견지하여온데 대하여 감회깊이 돌아켜보면서 특색있는 체조와 예술적형상으로 생신한 열정과 신비로움을 안겨주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10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는 해불야회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멸치며 청년들 앞으로!》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해불에 담아 조선로동당마크, 공화국기도형, 《김정은시대》, 《최고령도자》, 《승리의 기치》, 《백전백승》 《영웅조선》, 《일심단결》, 《경제건설》, 《가속화》, 《자력갱생》, 《과학기술》,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만세!》, 《최후승리》 등의 글발들을 새기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기도 하고 광장바닥에 천변만화의 대형을 짓기도 하였다.

수도 평양에서는 음악무용종합공연, 국립교향악단음악회, 국가도서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 조선우표집중전시,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등과 함께 여러 국제행사들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제련환모임,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공동주최로 진행한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에 관한 국제토론회,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 등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경축행사들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끌없이 강성번영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게 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화국창건 70돐경축 청년진위들의 행렬 0호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가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있었다.



34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김영호, 방은심,
김윤혁, 홍광남,
조선중앙통신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중에서



중앙사진전람회장에서



국가도서전람회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

조선우표 집중전시장에서



35



보양생활을 하고 있는 전쟁로병들

평양의 《금강산》이라 일컫는 통약산기슭에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가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쟁로병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보양소입구에서 우리는 마침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로병들을 만날수 있었다.

법운암에 갔다온다는 임경순 로병은 공기맑고 경치좋은 이곳에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니 기분이 좋다고, 10년은

젊어지는것만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며 래일은 통약산정점까지 올라가볼 결심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과는 달리 보양소의 맞은켠에 특색있게 꾸려진 은정호주변에는 낚시질에 여념이 없는 로병들이 있는가 하면 수림 속에서 산책을 하며 약초를 캐는 로병들도 있었으며 전쟁시기의 위훈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로병들도 있었다.

로병들의 생활은 보양소건물 안에서 더욱 이채를 띠였다.

장기경기와 윷놀이경기로 한창인 오락실이 그려하였다.

호실별로 진행되는 경기는 로병들의 승벽심으로 하여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었다.

《차야-》, 《포야-》 하며 장기판이 쟁 울리도록 쪽을 옮겨놓는 남성로병들의 장기경기도 볼만 했지만 윷을 던지며 신명나는 소리로 진행되는 윷놀이 경기는 안학선로병조가 련이어

후돌이 나와 진것으로 하여 폭소를 터쳐놓게 하였다.

오락실뿐만이 아니였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호실들, 도서실과 운동실을 비롯하여 편의 및 의료봉사시설에서도 로병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저녁녘이 되자 보양소에서는 로병들의 흥겨운 오락회가 진행되였다.

누구나 함뿍 웃음을 담고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들에서는 청춘의 열정이 차넘치고 있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황혼기의

로병들이건만 노래소리며 춤가락들이 아직 젊은이들 못지 않았다.

공화국영웅 리대순로병은 이렇게 전시가요를 부르고 한바탕 춤도 추고나면 전쟁시기가 생각난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총포탄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휴식참이면 노래를 부르고 악기도 타면서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였다, 오늘 나는 이곳에서 50년 대의 그 정신, 그 기백이 다시 살아나 청춘시절을 맞는것만 같다고 말하였다.

리준재로병은 이제 며칠으면 보양생활을 마치게 된다며

즉흥시 《은정님친 로병보양소의 밤이여》를 읊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로병들을 위해 이곳 종업원들이 특별히 준비한 공연은 오락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였다.

한동수로병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마다 로병들이 있지만 우리들처럼 복받은 로병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혁명선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휴양조건과 치료조건이 좋은 곳들에 로병들을 위한 보양소들을 세우도록 해주시고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진정 전쟁로병보양소는 인생의 로년기에 들어선 로병들이 청춘을 되찾게 해주는 집이였다.



변모되는 고장

예로부터 성천이라고 하면 약방, 담배가 유명하다. 그러나 오늘의 성천군은 다른것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성천군의 그 면모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이 고장을 찾았다. 그런데 평양을 벗어나기 바쁘게 무슨 비가 그리도 역수로 펴붓는지…

우리는 이 폭우로 하여 성천군에 큰물이 나지 않겠는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읍을 가까이하며 보니 군의 강하천제방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끄떡없었다. 오히려 강아래 쪽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발전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었다.



성천군유치원에서

변모되어가는 성천군의 일부

발전소에서 우리와 만난 강명호 군인민위원회 파장은 지난 시기 국가에서 다 보장해줄것만 바라면서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할 생각을 못한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또 강하천을 잘 다스리지 못하다니니 비가 많이 내리면 큰물이 나 군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군 하였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군에서는 먼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달라붙었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리니 군내인민들이 모두가 떨쳐나서 처음 해보는 공사였지만 빠른 시일에 완공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첫 공사에서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것을 체험한 군안의 인민들은 이어 강하천을 길들

자기 고향을 아름답게 꾸려나 가려는 군일군들과 인민들의 하나의 지향과 뭉친 힘은 성천땅에서 큰물로 인한 피해를 영원히 가셔내게 하였다.

공사를 통하여 군인민들은 무슨 일이든지 제힘을 믿고 한마음으로 달라붙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 군인민들의 이러한 정신력은 건설뿐만아니라 지방공업 발전도 적극 추동하였다.

군식료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설비의 현대화에 모를 박은 결과 생산장성과 제품의 질제고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할수 있었다. 규모도 크지 않고 종업원도 적은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는 물론 자기 고장에 흔한 물적자원으로 효

능높은 농약도 만들어내고 쓸모 없이 버리던 폐설물을 가지고 연유를 뽑아 런천기재들의 가동도 보장하고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불파 몇해사이에 새로 멋지게 다시 일떠세운 수십개의 학교들과 분교들, 덩지 큰 온실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정말이지 제힘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려는 이 고장 인민들의 열의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우리는 더욱 절실히 느낄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본 이 고장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는 지금 군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공사량에 비해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의 말대로 읍지구를 새롭게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가 낫파 밤을 이어 벌어지고있었다.

강명호파장은 군에서는 행정구획을 산업구획, 살림집구획 등으로 나누어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내밀고있다고 말하였다. 거의나 군을 새로 건설하는것과 같은 방대한 공사를 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내밀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군들부터 만짐을 지고 뛰였고 군내 인민들은 너도나도 스스로가 공사장에 나와 자기들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었다.

군건설의 첫 공정인 살림집건설이 착공의 삽을 박은지 불파 몇달밖에 안되는 사이에 끝났고 벽체미장이 한창이였다. 지금의 읍지구 건설은 지난 시기 강하천공사나 발전소건설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것이였



성천제사공장에서의 비단실생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역사유적 방선문

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은 군을 꾸려가는 과정에 높은 사상정신세계의 체현자들로 성장하였다.

자가 사는 고장-성천군이 나라의 일부분이라는것,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는 사업이 아무리 힘이 들고 아름찬 일이라 해도 무조건 해내고야말겠다는 의지를 안고 군을 완전히 일신시켜나가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이

참으로 돌보이는 사람들이였다. 애국으로 불라는 정신력을 지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천군을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고장으로, 그것으로 유명해지는 고장으로 되게 하고있었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이 지난 충정의 마음이 반드시 군의 모습을 새롭게 펼쳐놓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며 성천땅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애국의 성돌이 되라》

김수총 봉성목재가공공장 직장장에게는 별호가 많다.

창의고안명수, 발명가직장장, 도안창작가…

이것은 제10차 전국기계설계 축전, 제17차 5.21건축축전,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축전, 전시회들에서 1등상을 수여받고 발명권을 받은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된 평양국제가구 및 전자부문 과학기술전시회의 토론회

에서도 그는 논문 《목재가구 생산에서 품질개선방법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기술상을 받았으며 수많은 가구전문가들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부문이나 할것없이 막히는데가 없는 그는 무서운 정열가이다.

그는 공장에 배치받은 첫날부터 목재부문은 말할것도 없고 기계, 산업미술 등 다른 분야들도 파고들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김수

총직장장의 친척들과 로동자들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남다른 가구설계도안에 탄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연 무엇이 뜨겁게 자리잡고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것은 부모들이 심어준 불타는 애국의 냄이였다.

그의 귀가에는 늘 생전에 아버지가 하던 목소리가 울리군 하였다.

『수총아, 조국이 무엇으로

김수총박사와 그의 가족



강한것 같으냐. 땅이 크거나 인구가 많아서 강한게 아니다. 애국자들이 많을 때 조국이 강한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성돌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도 이걸 바랬다.』

일본에서 가구업을 하며 갖은 민족적친대와 멸시를 받던 그의 할아버지 김상수로인이 일가식솔과 함께 가구제작설비들과 가구견본품들을 모두 가지고 조국에 귀국한것은 나라를 받드는 성돌이 되자는 마음에서였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8월 19일 김상수로인일가가 가지고온 가구제작설비들과 가구견본품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보아주시고 그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시고는 그 동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공장을 하나 따로 꾸려주고 그들을 지배인도시키고 직장장도 시켜 그들이 책임지고 공장을 관리운영하게 하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때 당시 10살이었던 김수총직장장은 그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따뜻한 손길아래 김일성종합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을 거쳐 오늘에로 성장할수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바란대로 그는 애국의 열정에 키질을 하며 순간의 편차도 없이 질좋은 가구생산으로 조국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이 길을 걸었다.

그는 인체지지가구인 연석가구에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구현

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수많은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연구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가구보다 월등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 자개상감장식, 목상감장식기법 등 여러 장식기법들을 발전시키였다.

그 과정에 그는 선편리성, 선미학성, 위생안전성, 변형안정성을 보장한 품위있는 연석가구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가 만든 가구들을 보시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맛이 난다고, 재간있게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수총직장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훌륭한 가구들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하고싶어 하는 일은 힘든줄을 모른다고 자기 공장과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있는 그는 언제 한번 그 길에서 탈선할 줄 몰랐다.

그러한 그를 두고 동료들은 『애국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심오한 뜻을 우리는 김수총직장장과 그의 일가의 모습을 통해 깊이 절감하였다. 선대가 애국자일 때 후대 역시 애국자여야 선대의 모습도 빛이 나고 후대의 모습도 빛이 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하기에 건축학박사이며 조선가구협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아버지의 영웅메달이 대를 이어 빛을 뿌리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듬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아들딸들도 애국의 길을 변심없이 걸어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상식

금장암사자탑

금장암사자탑은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 금장골 금장암터에 있는 고려 초기기의 돌탑이다.

이 돌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3.87m의 3층탑이다.

바닥단돌 네귀에 쭈그리고앉은 사자모양을 조각하여 탑몸을 떠받든것처럼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자탑이라고도 한다.

탑은 밀단파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밀단의 구조는 특수하다.

밀단밀에는 바닥돌을 한벌 깔았는데 바닥돌 한변의 길이는 2.02m, 높이가 0.49m인 두툼한 네모돌을 썼으며 아무런 치례도 없다.

밀단의 중간에는 네귀에 각각 한마리씩의 돌사자(높이 1.1m)가 있고 북판에는 돌부처(높이 0.88m)가 놓여있다.

탑몸은 3층이고 우로 올라가면서 차례줄임을 주었다.

탑몸의 몸돌밀에는 총마다 고임돌을 놓았으며 매층의 지붕돌들에는 4단씩의 치마밭침이 있다. 치마의 밀선은 끝고 웃선만 양쪽으로 가볍게 들렸다.

지붕면은 물매가 비교적 급하며 가벼운 곡선을 이루었다.

지붕돌마다 네귀에는 바람방울을 달았던 쇠고리가 남아있다.

금장암사자탑은 밀단에 돌사자들을 기둥으로 세운 균형이 잘 잡힌 탑으로서 고려시기의 탑건축 형식과 조각기술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 * *



중국 길림성 통화현 통화시 영액포구 경생촌 설화자삼촌어머니 앞

영웅의 그 넛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촌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씨형제들이 장병일, 장병성, 장미영이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중국에 있는 사촌형제들이 장병수동생과 장병애, 장병순누이들도 모두 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삼촌어머니와 사촌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지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삼촌과 삼촌어머니는 저에게 항일혁명파 중국혁명, 조국해방전쟁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장씨집안의 혈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물과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그 이야기들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촌어머니,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66년(2016년)만에 영웅할아버지의 본명을 다시 찾 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대한 감동깊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서입니다.

삼촌어머니도 아다실이 작은할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662.6고지공격전투에서 적의 화점을 가슴으로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시 풍년동 9인민반
장병일, 장병성, 장미영을 립

그 전투위훈으로 전쟁시기 영웅이 된 작은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작은할아버지는 오래동안 장창결이 아닌 김창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월의 이끼속에 덮여 누구도 모르고 있던 영웅할아버지의 본명을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작은 할아버지의 돌사진과 함께 김창결(장창결)영웅동지라는 이름으로 된 묘비를 다시 세워주도록 하시였습니다.

묘비가 새로 세워지던 날 우리 형제들은 작은 할아버지의 돌사진앞에서 우리 가정에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영웅할아버지의 본명이 새겨진 영웅증서와 애국렬사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여러 도서들에 본래의 이름을 써 넣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일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형제들의 충정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보아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정말이지 태양파도 같은 그이의 품이 아니었다면 영웅할아버지가 어떻게 본명을 되찾고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전렬에서 오늘도 청춘의 모습으로 영생할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우리는 그이의 사랑과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영웅할아버지의 그 넛을 끊끗이 이어갈 하나의 생각으로 우량품종의 파일나무 수백 그루를 과학기술전당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각각 기증하고 식수하였습니다.

삼촌어머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은할아버지와 우리 3형제에게 베풀어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와 영웅의 넛을 이어갈 우리들의 마음을 중국에 있는 친척들모두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촌어머니와 사촌형제들이 한번 조국에 나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있는 영웅할아버지의 묘비도 돌아보십시오.

삼촌어머니, 정말이지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만 하렵니다.

삼촌어머니의 건강을 바라며.

온기 또한 맑고 시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만경봉에 오른 우리는 평양의 경치를 한눈에 바라보며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잘 알수 있었다.

—인상기—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

움이 자연이 가져다준것이라면

이렇게 놀랍지 않을것이다.

고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파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언제나 성실히 일하며 기쁨도 행복도 맛보고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라니 나의 입에서는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라는 노래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러자 나의 안해 리라가 연분홍살구꽃이 그려진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차림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것이였다.

나는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국, 인민의 락원을 이 작은 가슴에 언제나 안고 살겠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김 예브개니

나는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일흔이 넘도록 고국을 비방하는 그릇된 선전에 눈과 귀가 어두워 하루길도 안되는 고국에 와보지 못했었다.

고국은 어디 가나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있다. 사람들의 웃차림은 단정하였고 얼굴표정은 밝았다.

평양은 공원속의 도시라고 할만큼 록화가 잘되어 있었으며

나는 백수십년전에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기여든 침략선을 쳐물리친 평양성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조선전쟁이 끝난 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던 이 땅에 난대와 난대를 이어가며 고국인민들이 사회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들었다.

아마 내가 본 고국의 아름다

따뜻한 정

고국에 와서 내가 쓴 시가 『통일신보』에 실린것을 보니 정말 기뻤다.

나는 평양참관의 전기간 그 신문을 보고 또 보았으며 항상 가지고 다녔다.

물론 많은 시들이 출판물에

나갔지만 이번 고국방문길에 내가 쓴 시가 실린 신문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동료들은 저저마다 나를 축 하해주었고 고국의 일군들도 더 많은 글을 쓰라고 고무해주었다. 내가 든 숙소의 안내원들

도 시를 읽어보고는 정말 좋은 글을 썼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을 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나라들 같으면 너는 너,

나는 나는 개인주의가 사회에 범람해 사람들에게서 진실한 마음이나 따뜻한 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고국에서는 사람들사이에 눈시울마저 뜨겁게 하는 따사로운 정이 레사롭게 흐르고 있다.

나는 그것을 고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더 깊이 절감하였다.

서로서로 먼저 인사말을 나누고 도울것이 없는가고 물어보며 인간적인 정을 주고받



는 고국인민들, 바로 그래서 고국을 두고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하는것 같다.

나는 이런 아름다운 고국을 위한 글, 고국의 통일을 위한 글을 더 많이 쓰겠다.

중국 길림성 리정화



만경대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고국방문

잊지 못할 봄날에

- 중국 료녕성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

만경대고향집의 우물가에서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평양교원대학을 찾은 중국 료녕성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의 박광걸동포는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에서 가상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였다.

그리자 만화영화와 같은 화면의 학생들이 일제히 목청을 돋구어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는것이였다.

동포들은 놀랐다.

학생들이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활동하고있는것도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름아닌 평양교원대학의 교

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였다는것이 더욱 놀라웠던것이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고 인공잔디를 입힌 넓은 운동장에 나선 동포들은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부르며 한바탕 춤마당을 펼치였다.

고국을 방문한 대표단성원들의 감동은 비단 평양교원대학에 서만이 아니였다.

김일성화축전장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에서도 그들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이 저 하늘끝에 닿아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즐긴 동포들은 이름난 대동강맥주며 단고기장, 평양랭면도 맛보았다.

방해란, 김해옥, 정성자, 김의팡, 장명, 리태수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은 고국에서 보낸 길지 않은 나날이야말로 자기들의 인생에 즐거운 추억으로 깊이 남아있을것이라고, 고국의 이 봄날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클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불멸의 꽃 김일성화에 매혹되어



평양교원대학에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도 관람하였다.



돈과 직업, 일터와 조국 (2)

그도 녀성이였다. 그리고 왜 다른 녀성들처럼 끊임 차려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으랴.

중학시절 공부도 체육도 남달리 잘해 포부도 컸던 그에게 대학으로의 길이 열려져 있었지만 한생을 수원지의 뽑프운전공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보내주는 일이 얼마나 좋으냐!》라며 입버릇처럼 외우던 부모들의 뒤를 이어 그도 도시경영부문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떴다.

하지만 한창 맵시를 불꽃나이시절에 목긴 고무장화를 신고 한여름의 땀에 땀에 젖어온 일을 하다 동창생들의 눈길과 마주칠 때면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어느 날 최정순은 끝내 작업반장아바이를 찾았다. 이 일만은 못하겠다고 울먹이는 그의 등을 다독이며 작업반장은 조용히 말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물을 쳐내고 도시를 깨끗이 하는 일은 인민들에게 복무하는 영예로운 일이라고 가르쳐주셨단다.》

그날밤 그는 오래도록 생각했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자가 되자.)

그때로부터 눈에 별로 띠지 않는 그의 일은 날과 달을 이어 끝없이 계속되였다.

그 나날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부엌이나 세면장의 하수관을 까고 수리하는 일은 남자들도 큰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인데 하물며 녀성이 그런 일에 한생을 바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일터는 마음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량심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초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한정순녀성이었다. 그 나날 그는 네 자식 모두를 자기의 한초소에 세웠다. 막내딸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치되었을 때 그는 말했다.

《수리해주려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고칠 방도가 나진다. 이제 주민들이 너를 찾게 되는 그날이 오면 너도 네 일에 대해 궁지가 생길게다.》

사람들은 한정순녀성이 땀을 철철 흘리며 집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는 《고맙네. 자네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 우리 제도가 끄떡없는거지.》라

고 하며 그의 등을 어루만져주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사는 멋이로구나, 생활의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모른 그였다.

인민들이 기뻐하는 재미에 한생 기꺼이 굽은 일을 해온 그에게 있어서 위생시설수리공의 직업은 제일 좋고 가장 중요한 일이였으며 그것은 곧 조국을 위한 일이였다. 그의 한생이 이렇게 흘러갔다. …

최정순녀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농장원이나 건설자의 손보다 더 험했다. 그것을 보며 나는 손이 닳았다는 표현의 참의미를 비로소 알수 있었다.

그런 그의 손목에 나라에서는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채워주었고 그를 공훈도시관리공, 시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었다. 자기의 일터에서 인민을 위해 량심을 깡그리 바쳐온 그를 전국영웅대회에도 불러주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는 수십년간을 위생시설수리공으로 일해오고 있는 최정순과 그의 자식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고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고 한다.

그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최정순녀성과 같이 일터를 량심으로 빛내여가는 애국자들이 많고 많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조국이 끄떡없는 것이라고.

헤여질 때 그가 하던 말이 인상깊게 남아있다. 《나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조국이랍니다.

조국이 하나의 생명유기체라면 일터는 그 세포들이라고 할수 있지요. 누구나 일터를 사랑하며 온넋으로 받들 때 조국이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일터를 끝없이 사랑합니다.》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흰서리 내린 오늘까지 인민의 부름앞에 한번도 《못하겠수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라는 말을 해본적이 없는 그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늙지 마십시오!》라고 한다.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으로 일터를 빛내여가는 한정순녀성이 한없이 돋보여 나 역시 그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다.

《늙지 마십시오!》 …

(끝)

재카나다동포 김경란

수기

진정

나는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국을 방문하였다.

고국방문이 처음이여서 그런지 나의 마음은 겉잡을수 없이 설레이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고국이 내가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을 통해 알고있는 그런 나라일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류학을 하면서 고국인 조선에 대한 비난의 말을 많이 들었다.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이라는것, 너무 힘들게 살아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다는것…

그러나 평양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 나는 이때껏 내가 악선 전투성이 속에서 살아왔다는것을 알았다.

얼마나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한지 첫인상부터 마음에 흡뻑 든 것은 물론 사람들을 또한 친절할뿐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서는 그 무슨 고생속에 묻혀 돌아가는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구면 인듯 다정하게 《반갑습니다.》하고 먼저 인사를 보냈고 빼스를 타고 갈 때면 손저어주며 정이 푹푹 들게 대해주었다.

나의 성악을 지도해준 고국의 선생님들도 민요에서의 굴림을 비롯하여 힘든 부분들을 내가 쉽게 소화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노래 《오늘의 창성》을 선택했다고 하자 정말 좋은 노래를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 노래는 지난날 뒤떨어지고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졌던 두메산골 창성이 위대한 주석님의 온

혜로운 손길아래 살기 좋은 인민의 랙원으로 전변된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다 흥취나게 불러야 한다고 깨우쳐주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그 어디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래서 조선인민은 누구나가 《우리 수령님》이라고 절절하게 부르며 그이를 그리워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 수령님!

이 말을 되새길수록 생각은 깊어졌다.

고국땅 그 어디서 그 누구를 만나봐도 그들은 주석님을 그리워하고 그이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눈굽을 축축히 적시였다.

예로부터 세월은 모든것에 변천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주석님을 그리는 고국인민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 강렬해진것만 같았다.

내가 여러 나라들에 다녀보았지만 정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고국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님!

나도 중국에서 텔레비죤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이께서는 늘 수

수한 옷을 입으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정사를론하시였다.

그이의 뜻을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도 한생을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태우시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그분들의 봄원을 현실로 꽂아위하고 계신다.

고국의 현실을 대하고보니 중



국의 어느 한 시인이 쓴 인민은 자기 머리우에 올라서서 자기가 위대하다고 웨치는 사람은 내리우지만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높이 밟들어 올린다는 내용의 시가 절로 생각났다.

고국인민들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그분을 열렬히 경모하고 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진행되 군 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더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감정이 축적되어서인지 축전무대에서 노래 《오늘의 창성》을 부르던 나는 그분의 생애가 눈앞에 떠올라 간주에서 《주석님!》 하고 심장으로 웨치였다.

이것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온 진정의 토로였다.

나는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 고국에 대하여 모르는 세대들에게 고국의 현실과 위인들에게 대하여 보고 들은대로 정확히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다음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꼭 참가시키겠다.

위인칭송의 축전은 세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한다.

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 민족성악교수 리홍판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용 (2)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근로대중속에서 농악무와 탈춤이 성행하고 지방적 특색을 나타내면서 발전하였다.

이 시기 농악무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더욱 성행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항시적으로 농악무를 앞세우고 생산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것은 농업생산성과를 적극 고무 추동하고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루어나가는데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이른아침이면 마을 어구에 모여 농악을 한바탕 울리면서 논벌로 향하였고 논벌에서도 늘 풍악을 울리면서 농산작업을 고무하였다.

그들은 민속명절에도 농악 춤판을 펼치고 온 마을이 들썩하게 흥취를 돋구면서 풍작을 바라거나 경축하곤 하였다. 이 시기 이름난 농악무들로는 《평양농악무》, 《순천풍년바래기》, 《광천마당놀이》 등을 들 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탈춤도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까지 우리 나라 탈춤은 민간예술인들의 주요 공연 종목으로 되었지만 17~18세기에 이르러서는 각지 상업류통지들에서 널리 보급되면서 근로대중의 대중적인 민속무용으로 지방적 특색을 뚜렷이 나타내며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수도와 전국 각지의 상업 중심지들에서는 산대패, 놀이 패들의 공연이 널리 진행되고 그것은 상인들의 상업 활동에도 큰 리익을 주었다. 민간 예술인들의 탈춤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들을 초청하기 어려워지자 여러 상업 중심지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판노들이 탈춤을 배워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지역적 특색을 가진 탈춤들이 생겨나고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황해도 봉산탈춤이었다. 봉산탈춤은 중, 량반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주어 유명해졌는데 탈춤을 추기 전날부터 린근군들에서 까지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으며 춤판 주변에는 수많은 관객들로 혼잡을 이루었다고 한다. 봉산뿐 아니라 해주, 황주, 린산을 비롯한 황해도의 여러 지역들에서도 지역적 특색이 있는 탈춤들이 널리 추어짐으로써 이 지방들은 《탈춤고장》으로까지 불리워졌다.

경기도의 여러 지방에서는 산대놀이가 발전하였으며 경상도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가산오광대 등과 같은 탈춤이 성행하였다.

평양, 성천 등지의 평안도와 북청, 정평, 함주, 단천과 같은 함경도 지역들에서는 사자탈춤이 발전하였으며 특히 북청사자탈춤이 유명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민간예술무용도 발전하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였다.

이 시기 우리 인민들의 정서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당패, 산대패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의 민간예술단체들도 활동하였다. 사당패들은 북, 징, 꽹과리, 장고, 파리와 같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타면서 여러 곡의 민요들로 엮어진 련쇄곡 형식의 《사거리》를 노래부르고 그에 맞추어 춤을 추었는데 황해도, 경기도의 사당패들은 《놀량사거리》를, 전라도의 사당패들은 《보념사거리》, 《화초사거리》를 주로 공연하였다. 사당패들의 공연 활동은 그 내용과 형식이 인민들의 정서적 미감에 맞는 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산대패들은 탈춤을 기본으로 하여 공연한 민간 예술단체였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까지 탈춤은 국가적인 행사였던 산대 잡희에서 주로 공연하였지만 18세기부터는 상업 중심지들에서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민속 관계책 《경도잡지》에 기록되어 있다.

걸립패는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사당패의 일부가 떨어져나와 구성된 민간 예술인 단체로서 농악무를 기본 공연 종목으로 하였다.

이 시기 기녀들의 예술 활동도 적극적이었다. 기녀들의 대표적인 춤 종목으로서는 칼춤과 같은 종목들을 들 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궁중무용도 발전하였다.

초기 궁중무용으로서는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와 같은례식무용, 《봉래의》, 《아박춤》, 《무고》 등의 향악무용과 당악무용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민속무용의 발전에 토대하여 궁중무용의 종목 수도 훨씬 많아졌다.

궁중무용 종목들이 더욱 다양해지는 것과 함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게 됨으로써 《시옹무보》와 같은 그림도 해식무용 보도 창안되었다.

민족성이 강하고 우수한 민속무용 종목들과 춤기법들은 오늘 주체적인 민족무용 예술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풍부한 재보로 되고 있다.

(끝)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사 김선영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1)

- 백마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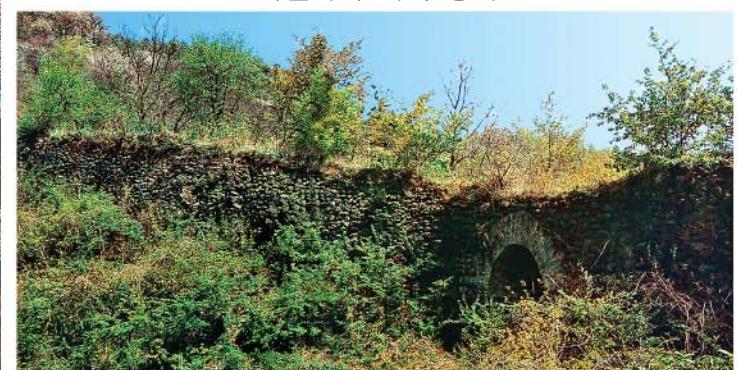
평안북도 폐현군에 백마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기에 역사적으로 북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침입해온 외래 침략자들은 의주를 지나 이곳 백마산성을 목표로 삼고 달려들었습니다.

백마산은 북으로는 의주, 남으로는 통천, 폐현 일대의 사면 팔방을 손금처럼 굽어 볼 수 있어 적의 동정을 살피는데서나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요격하는데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백마산성은 또한 북으로는 압록강을 건너 료동지방으로 통하고 남으로는 선천, 정주, 안주 또는 구성, 박천, 안주를 거쳐 평양에 이르는 교통의 중심지에

백마산성의 내성



상식

건강에 좋은 밤

밤에는 당질, 단백질, 기름질, 비타민, 광물질 등 5대 영양소가 균형적으로 들어 있다. 기본 성분은 당질인데 사탕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단맛이 세게 난다.

기름질, 비타민, 광물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이므로 병을 앓고 난 사람이나 젖먹이 어린이에게 좋다.

생밤은 근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하체가 약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

그러나 생밤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한다.

* * *

가퀴는 옛 그대로입니다.

성가퀴에는 지붕을 씌우고 화약을 넣어 두는 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안에는 13개의 뭇파 32개의 우물을 파놓았던 자리가 있고 여러 채의 무기고와 식량창고, 병실 등 집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 무기고에 활, 화살, 창, 화승총, 화약 등이 가득 차 있었고 건물들에는 수많은 소금더미와 수백 섬의 숯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018년 외적이 압록강을 건너 백마산성에 침입하였을 때 고려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창조적 슬기와 애국적 투쟁이 깃들어 있는 백마산성은 중세 우리 나라의 성곽제도와 역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되는 역사유적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민족의 순결함이 실린 백자기

예로부터 동서방사람들이 귀물로 여겨온 조선의 도자기들 중에는 고려청자기와 함께 조선 봉건왕조시기의 백자기도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백자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조선 미술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국보적 가치를 가진 수많은 미술작품들 가운데서 도자공예가 조선화 못지 않게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자기(백자)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려시기에 청자기가 유명하였다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백자기가 이름이 났습니다. …』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백자기는 고려청자에 비해 그 수량에 있어서나 품종, 형태와

청화백자글자무늬누비밥그릇

19세기



무광택결정유화병

주체55(1966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모양에 있어서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자의 포근하면서도 어딘가 감미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아름다운 흰색 같은 예로부터 깨끗하고 순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호에 맞는 색깔인것과도 관련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봉건통치배들 자체가 채색자기의 제작과 그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량반관리들은 유교의 《검소》, 《검약》을 표방하면서 다채로운 색깔이나 장식, 화려하고 정교하며 섬세한 것을 배척하였지만 당시의 도자기장공인들은 유교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일반사람들도 생활에 도자기를 리용하려는 경향이 커가고 사람들의 생활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해져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지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자기의 다량출현으로 평민들까지 일상 식생활도구로 리용

청화백자의 색깔은 조선화의 색채처럼 선명하고 연하고 부드

려운것인데 이것은 오랜 역사로 통하여 이루어진것으로서 조선민족의 독특한 민족적색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백자에는 아무런 무늬장식도 없는 순백자, 사발이나 바리같은데 새겨진 돈을무늬들이 적당한 높이로 부각되어 고상한 운치를 나타내는 돈을무늬백자, 꽃같은 무늬를 회화적으로 새기고 붉은 흙을 박은 상감백자, 그릇표면에 푸른색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그 우에 희고 투명한 유약을 발라서 구운 청화백자가 있습니다.

청화백자기, 화자기, 청화기, 화사기, 청화자기 등으로 불리워온 청화백자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자기보다 많은 력사기록들을 남기고있습니다.

청화자기의 특색은 청화무늬가 간결청초하게 도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백자기는 당시 공예가들의 풍부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며 그 종류, 아름다운 모양, 무늬, 유약색깔 등에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과 정서가 깃들어 있는 귀중한 민족문화재입니다.

고려청자기에 뒤이어 그 명성을 또다시 세상에 멀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백자기,

정녕 오늘도 조선의 백자기는 국제적으로 『백자로서는 최상의것』, 『백자로서의 아름다움에서는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도자기창작단과 경성, 선교 등 조국의 곳곳마다에서 우수한 백자기가 수많이 생산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인민들은 앞으로도 민족의 순결함이 함뿍 실려있는 백자기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며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왕오천축국전》과 혜초

1910년 중국 돈황지방의 한 동굴에서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이 발견되었다.

이 책에는 수십개 나라들의 사회정치제도와 자연지리적조건, 사람들의 경제생활형편과 문화생활, 도덕과 풍습, 종교와 미신 등 세밀하게 관찰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기록되어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지리적 및 자연지리적서술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의 정치기구, 도시와 나라의 이름과 지리적환경, 자연부원과 특산물, 생산방식과 생활모습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이 력행기의 저자는 혜초이다.

혜초는 8세기초에 활동한 우리 나라의 력행가로서 당시로서는 제일 먼 거리를 력행하였다.

불도에 몸을 잠그고 있던 혜초는 불교의 발생지인 인디아에 가볼것을 결심하고 바다를 건너 중국의 장안에 갔다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스리랑카를 거쳐 인디아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이 지방에 있던 《오천축국》

즉 당시의 다섯개(동, 서, 남,

북 및 중앙)의 인디아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다음 북서쪽으로 계속 력행하여 카슈미르에 이어 서남아시아의 인디아양연안나라들을 돌아보았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력행을 계속하면서 727년 11월에 당나라의 수도 장안(오늘의 서안)에 도착하였다. 혜초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안에서 사망하였다.

혜초는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그 대부분을 직접 걸으면서 무려 10만여리의 먼길을 다녔으며 이 답사과정에서 자기가 체험한것, 보고 들은 사실들을 력행기 《왕오천축국전》에 상세히 써서 남겨놓았다.

이 력행기는 오래동안 알려지지 못하고있다가 중국 돈황지방의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종교적립장과 관점에서 부정확하게 보고 서술한 부분들이 있으나 이 력행기는 8세기의 인디아와 그밖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연구에서 가치있는 자료로 된다.

* * *

유모아

황새의 다리

아버지: 『철이야, 황새가 땅에 서있을 때 왜 한쪽다리를 올리는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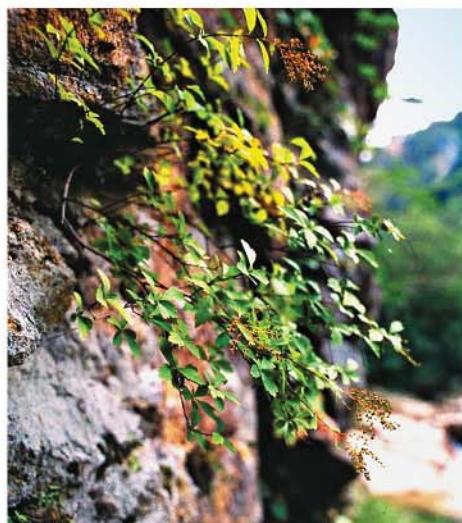
아들: 『그야 둘다 올리면 넘어지니까 그러지요 뭐.』

아버지: 『? …』



조국의 천연기념물 (21)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는 천연기념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희귀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금강국수나무, 금강초롱, 이천영웅은행나무, 내금강전나무림, 두류산고양나무군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강국수나무

금강국수나무는 강원도 금강 산의 내금강 만록동구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금강국수나무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면

적은 약 15정보입니다. 자원량은 2 680그루정도입니다.

80~90년 자란 큰 나무의 평균높이는 1. 3m이고 뿌리목둘레는 0. 3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0. 2m, 나무갓너비는 0. 8m입니다.

금강국수나무는 세계적으로

1종밖에 없는 희귀한 특산속식물로서 장미목식물과 범의귀풀목식물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세계적인 명산으로 알려진 금강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므로 특별히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금강초롱은 강원도 금강산의 내금강의 만록동 골안과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외금강의 만물상구역을 비롯하여 해발 600m이상 되는 곳

에 퍼져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금강 만록동구역에 퍼져있는 금강초롱무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강초롱

이 금강초롱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15정보이며 자원량은 4 000포기정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는 금강초롱은 우리나라 식물상의 형성과 함께 도라지목과 국화목식물의 계통관계를 해명하는데서 학술적의의가 크며 금강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귀중한 나라의 재보로 되고 있습니다.

이천영웅은행나무는 강원도 이천군 이천읍에 있는 한그루의 암나무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폭격으로 나무의 모양이 심히 파괴되었습니다.

조선 속담 (강의성)

-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다

서리를 맞으면 다른 꽃들은 다시 들어도 국화는 서리를 이겨낸다는 뜻으로 절개나 의지가 매우 굳센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돌강변에 내놓아도 살겠다

아무것이 없는데서도 살아가겠다

는 뜻으로 생활력이 강한것을 이르는 말.

- 찬물에 둘

찬물속에 있는 돌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는것처럼 지조가 깨끗하고 굳셈을 비겨 이르는 말.

- 하늘이 열쪼각이 나더라도

《그 어떠한 곤난파 애로가 닥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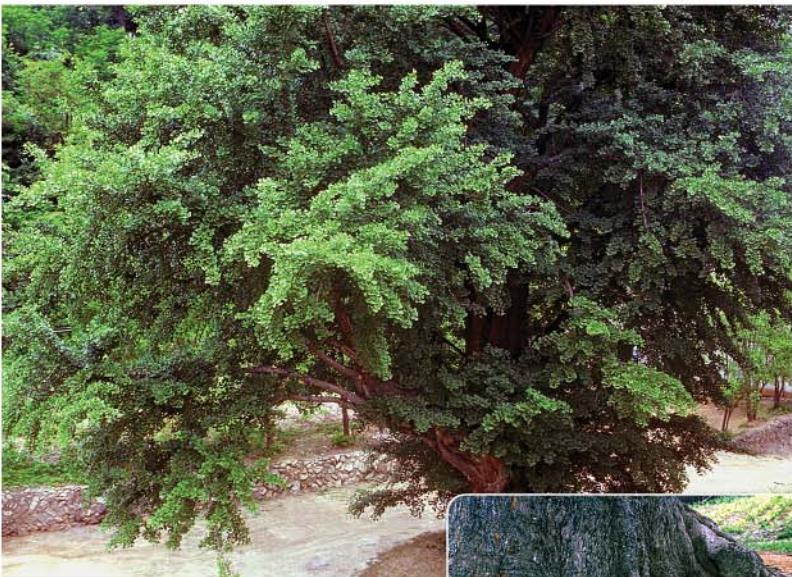
오더라도》라는 뜻으로 무엇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심할 때에 쓰는 말.

참고: 하늘이 두쪽반이 나더라도

- 빠른 바람에 굳센 풀을 안다

굳은 뜻과 절개는 어떤 시련을 겪고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됨을 이르는 말.

* * *



이천영웅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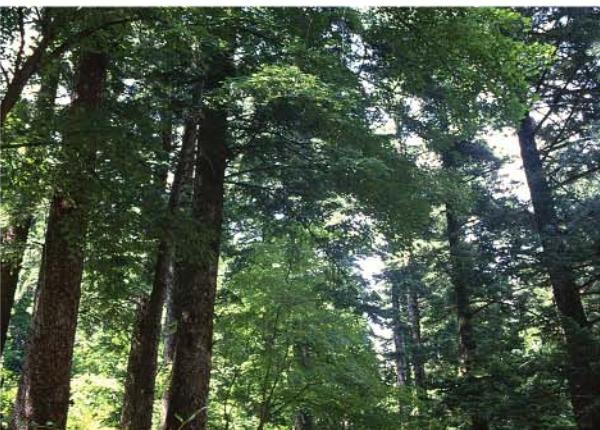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금강전나무림은 강원도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주변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 면적

은 128정보나 됩니다. 이곳에서 300년이상 자란 큰 나무의 높이는 23m이며 나무갓너비는 13m정도입니다.

나무는 지난 전쟁시기 비록 손상되었지만 그후 잘 보호관리되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

내금강전나무림



두류산고양나무군락



연전나무림입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나무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자연전나무림의 전형으로서 학술적의의가 클뿐만 아니라 금강산의 풍치를 돋구어주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두류산고양나무군락은 강원도 천내군 동홍리의 두류산(海拔 1 324m)의 북서 비탈면에 퍼져있습니다.

이 일대는 석회암지대여서 고양나무분포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보호구역의 면적은 630정보입니다.

두류산고양나무군락에서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5m, 뿌리목둘레는 0. 8m, 나무갓너비는 2. 6m이며 제일 작은 나무의 높이는 1. 2m, 뿌리목둘레는 0. 3m, 나무갓너비는 1m입니다.

두류산고양나무군락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고양나무군락의 하나로서 학술적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적들을 포위섬멸하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있는 조중 두 나라 전투원들

한전호에서 함께 싸운 친우들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거듭되는 상봉과 회담들에서 합의된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들어와 진행하신 3차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 방문은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추동하고 보다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하기에 조중인민들은 조중친선의 역사에 깊이 아로새겨진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그 나날들중에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조선의 군대와 인민과 한전호에서 함께 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빛나는 위훈도 새겨져 있다.

당시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여

조선전선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을 함께 쳐부시기로 하였다.

조선전선에 파견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25일 운산지구전투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였



조선인민군파의 협동하에 침략자들을 무찌르며 진격하는 중국인민지원군 전투원들

다. 그리고 1950년 11월에는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함께 개천지구를 비롯한 청천강반파 장진호반에서 대격전을 벌리고 제국주의련합부대들을 전멸의 운명에 몰아넣었으며 전조선을 먹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북진에 열을 올리던 적들의 이른바 《크리스마스총공세》를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은 조선인민군 부대들과의 협동작전을 강화하면서 적의 유생력량을 부단히 소멸약화시키고 강점된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강원도의 상감령방어전투가 중국인민지원군의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무비의 용맹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1952년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침략자들은 상감령을 타고앉기 위해 이 지구에 4개 사단의 병력과 100여대의 비행기, 수많은 포와 땅크를 투입하였다.

그때 상감령의 두 고지에서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개 중대씩 쟁도를 굽설하고 방어하고 있었다.

가렬한 격전끝에 지원군의 한 구분대가 차지한 고지에는 무호옥, 왕조기, 왕사우용사만이 남았다. 그들은 불바다로 변한 고지우에서 3일간 수백 배나 되는 적들과 전투를 벌려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황계광영웅은 팔과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사랑하는 조선, 그것이 어찌 내 고향, 내 조국과 다르랴! 적탄은 비록 나의 생명을 빼앗아도 사랑하는 조선의 형제들은 빼앗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끓는 가슴으로 적화구

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황계광영웅뿐이 아니였다.

식량도 물도 떨어진 봉쇄된 쟁도속에서 투항을 권고하는 적들을 가소롭게 여기며 대원들에게 비굴하게 살기보다 국제주의전사로 영예롭게 죽자고 한 지원군 리보성중대장, 폭약을 안고 적땅크밀으로 뛰여들어간 양근사영웅, 두다리를 잃은 속에서도 수류탄묶음을 안고 굴러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손점원영웅, 적들이 뿐린 소이탄에 의하여 옷에 불이 달리고 살이 타들어갔지만 391고지 습격전투승리를 목숨바쳐 보장한 구소운영웅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주석의 아들 모안영렬사와 사원후, 양련제렬사들, 숭고한 희생성과 뜨거운 정성으로 수많은 부상병들을 구원하여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한 류수진간호장…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위훈은 조선의 대지우에 별처럼 새겨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을 침략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선의 평화와 해방위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중국인민지원군의 혁혁한 공훈을 높이 평가하여 수많은 장병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훈장, 메달들을 수여하였으며 수도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우의탑을 세우고 회창, 운산, 개천, 장진, 개성 그리고 상감령과 금성천기슭 등 지원군렬사들의 퍼가 스민 곳에 지원군렬사묘들을 정히 꾸려 후대들이 조선인민을 퍼로써 도와 싸운 중국인민의 피어린 투쟁을 잊지 않게 하고 있다.

본사기자



평화와 번영의 리정표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봉관에 넘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리행에 떨쳐나서고 있는 시기에 10. 4선언 발표 11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주체96(2007)년 10월 4일은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의의깊은 날이다.

10. 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히익을 중시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치향시켜나갈것을 명시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10. 4선언에는 북과 남이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실천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10. 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겨 이루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행동지침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번영과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은 10. 4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그 리행을 가로막아왔다.

리명박보수패당은 10. 4선언을 《할것》과 《못할것》, 《나중에 할것》 등으로 칼질하다 못해 《전면무효》를 선고하였다.

박근혜역도 역시 10. 4선언을 마구 짓밟으면서 그 리행을 끈적지게 거부해나섰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10. 4선언의 조항들은 어느것 하나 실천된것이 없으며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평화는 유린되었다.

그러나 10. 4선언은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그 정당성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오늘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가는것은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것을 실현하자면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

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의해 마련된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판문점선언에 새겨진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써만 이룩 할수 있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북과 남사이에는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도 협력분파회담, 도로협력분파회담, 통일통구경기, 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담과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온 겨레는 이러한 회담과 행사를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판문점선언의 의의를 깎아내리고 그 리행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내외의 온 겨레는 아무리 반통일 광풍이 불어와도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 판문점선언의 기치따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서해갑문은 조선의 관광에서 이채를 땡니다.

8km의 날바다우에 건설된 갑문에는 3개의 갑실이 있습니다. 1호갑실로는 2천t급, 2호갑실로는 5만t급, 3호갑실로는 2만t급 배들이 나들수 있습니다.

갑실우의 회전다리에는 기차길과 자동차길, 걸음길이 있습니다. 갑문언제는 대동강의 큰 물량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는 수십개의 수문을 설치한 기본무념이언제와 보조무념이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해갑문으로 하여 대동강하류에는 수십억m³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대인공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70(1981)년부터 주체75(1986)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 갑문은 조선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칠보산 덕골구역의 가을 본사기자 최유성

숲에 묻힌 산발들과 기암절벽, 기묘한 봉우리들과 바위들로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 칠보산의 덕골구역에 가을이 왔다.

그 누구도 와보지 못했을듯싶은 깊은 산골짜기에 류다른 정각이 아담하게 들어앉아 이곳 가을경치의 이채로움을 더해주는듯싶다.

